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식도에 관한 연구

Degrees of Understanding Regarding Information Literacy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이 현 실(Hyun-Sil Lee)*

최 상 기(Sang-Ki Choi)**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ACRL의 기준을 근간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별, 학교별, 학년별, 전공별과 ACRL에서 제시하는 단계간의 인식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단계내의 성취지침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에서는 '요구정보의 정의'에 관한 지침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정보자원의 유형 확인'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정보의 효과적 접근'에서는 '효과적인 검색전략의 구현'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다. '정보의 평가와 통합'에서는 '정보와 자원의 평가 기준 적용'이 가장 높았고 '주제영역 전문가, 실무자와의 상의를 통한 정보의 이해와 해석'이 가장 낮았으며 '정보의 이용' 단계에서는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성과 전달'과 '특정작업 계획에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적용'이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정보윤리'에서는 각 지침들간의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논문에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 인식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is a survey study to measure degrees of understanding regarding Information literacy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ACRL standards. I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ge, gender, major, and University. There were also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five ACRL standards. However,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performance indicators in each standard. For example in the first standard, the performance indicator 'Determine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information needed', 'Defines the need for Information' had the highest score. 'Identifies a Variety of Types and Formats' had the lowest score. In the second 'Effective Access of Information', 'Implements Search Strategies' had the highest score. In the third 'Evaluate and Incorporate Information', 'Applies Criteria for Evaluating' had the highest score, and 'Interpreta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Discourse with Subject-Area Experts' had the lowest score. In the fourth 'Use of Information', 'Applies New Information', 'Communicates the Product to others' had the highest score. In the last 'Information Ethics',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This study also showed outcomes regarding the details in each standard.

키워드: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교육, 정보활용능력 인식도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degrees of understanding regarding Information literacy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hyunsil@wonkwang.ac.kr)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sk@moak.chonbuk.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4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생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이 촉구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의 시대적 교육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와 학생들의 정보 경쟁력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정보지식인 양성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정보활용능력은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평생학습의 기본 조건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항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육의 내용은 도서관 이용이나 서지 이용법 등이 주류인 형편이어서, 보다 전문적인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대한 현재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객관성 있는 현실의 진단과 수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

내에 정보활용능력 교육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외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고등교육위원회(ACRL)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기준'을 근간으로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중요 인식도를 설문조사하였다.

1.1.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년별, 전공별, 학교별의 집단간에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설정된 정보활용능력 기준의 각 단계간에 인식도의 차이, 즉 절차적인 개념 범주들간에 인식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각 단계별로 성취 지침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의 실천항목들에 평가된 중요 인식도의 순위를 파악한다.

1.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범위를 특정지역과 두 대학에 한정된 것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한 대학에서는 연구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반면에, 다른 대학에서는 도서관·정보이용법을 수강하는 집단을 표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과목의 수강초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으리라고 판단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활용능력의 정의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과과정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되지만 주로 인포메이션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라는 개념으로 통합되고 보편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원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리터러시(Literacy)라는 영어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자연어로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함의하는데 무리가 없으면서, 기존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적절한 용어가 '정보활용능력'이라는 단어이다(김종성 2003).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으로 최근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정의를 고찰하면, ALA(America Library Association, 1989)에서는 "정보가 언제 필요한지를 알고, 정보를 찾아 평가할 수 있으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Say와 De Jager(1997)은 "정보활용 능력은 학습자가 다른 소스의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 및 평가하고, 학습의 능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정보소양을 갖춘 지식사회의 능력자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Murdock(1995)는 정보활용능력을 협의의 의미에서 거론되는 도서관 중심의 인쇄책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서지교육과의 구별을 강조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소재를 파악할 줄 알며, 평가하고 관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실제로 정보활용능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CSUS(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는 동일한 의미로 "정보경쟁력"(Information competency)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다양한 포맷의 정보를 찾아, 평가하고, 이용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서관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미디어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 윤리, 비판적사고, 커뮤니케이션기술의 융합 또는 집성(Henderson and Scheffler 2003)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보활용능력의 정의는 이처럼 컴퓨팅과 미디어기술과 같은 최신 급속히 발전되는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윤리 문제, 비판적 사고력 등을 총 망라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접근은 교육학적 방법론을 포괄하여, 대학에서 학문 활동의 기초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2 관련연구

2.2.1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제문제와 방향

UCLA 고등교육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78.5%의 대학생들이 대학입학 이전에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이 학문적 이용에는 연결되지 않았고, '정보활용능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생들은 초록을 이용하여 원문에 접근하거나, 주제에 맞게 정확히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레포트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과 인터넷상에서의 표절이 많은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구소는 정보활용능력을 위하여섯 가지 전략을 다음과 제시하였다(Jenson

2004). (1) 학생들에게 왜 그들이 정보를 찾고 있으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2) 도서관과 전자도서관 탐색에 필요한 용어를 교육한다. (3) 학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는 특정 탐색기술을 실습시킨다. (4) 학습과정으로서 도서관 체험을 하게 한다. (5) 컴퓨터에서 검색되는 것들을 해석할 줄 알게 한다. (6) 미해결 문제가 있다면 탐색한 과정을 낱말이 기록하게 하여 성공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도서관 정보이용 교육에 종사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1) 기술발달에 의한 고무적인 표준과 지침의 출현, (2) 정보활용능력 정의의 변화, (3) 표질의 증가, 저작권의 문제, 정보의 사회적 윤리적 이용, (4) 교육과 학습에 있어 디지털 시대의 영향, (5) 새로운 교육방법의 출현과 강의에서 기술 이용(Arp and Woodward 2002)을 가장 핵심적인 결과로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다양한 평가와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김병주(1998)는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을 연구한 결과, 발전에 기여한 사항을 (1) 고등교육의 변화 및 경제적 영향, (2) 도서관 분야 선각자들의 교육적 인식, (3) 도서관 관계단체의 직책과 적극적 활동, (4) 이용교육에 관한 많은 도서와 기사의 출판, (5) 이용교육 담당사서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방법 개발, (6) 도서관 전문단체에서 기준 및 지침 제시와 지원, (7) 이용교육 증진을 위한 단체결성 및 저널발간, (8) 정부와 비영리 단체의 기금 수혜, (9) 담당 사

서와 교수의 긴밀한 협력, (10) 컴퓨터와 과학 기술의 적절한 활용으로 요약하였다.

실제 대학의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설계의 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SOU(Southern Oregon University)는 모든 학생이 스스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학습을 기반으로 신입생들이 대학 1년 동안에 이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Higgins and Cedar Face 1998). 첫해의 프로그램 수행 후, 그룹토의 지도교수들의 85%가 사서들이 효율적으로 그들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2%는 사서들이 적절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86%는 도서관 강의가 학과과목 과정 구성과 과제에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참여 학생 전원을 그룹토의, 강의, 전시에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사서가 강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커리큘럼과 그룹토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교수와 협력적인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이용과 교육학적 방법론의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론은 (1) 기본기술 교육에 별도의 학습모듈 이용, (2) 실연이나 강의보다는 워크샵 이용, (3) 과제가 있는 학과 강의와 도서관 강의를 통합하여 강의 전달식보다는 실제의 학생요구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 이었다.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장덕현(2002)은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을 고찰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은 “정보검색교육”, “학술정보이용교육”, “도서관이용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는 주로 (1) 매학기 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안내책자 배부, 오리엔테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견학, (2) 학기 초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규모 그룹교육, (3) 대학원생 또는 교수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 소규모그룹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설계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1) 독서와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이 발전해 나아가는 점, (2) 입수한 자료에 만족하지 않고 그 요구가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3)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 사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모든 커리큘럼을 망라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가르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커리큘럼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Eland 2003).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정보활용능력이라는 주제는 커리큘럼 개발과 교유의 목표를 완수하고 나아가 다른 학문이 완성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2.2.2 정보활용능력 기준들의 개념적 범주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활용능력의 기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 for Higher Education)은 대학도서관 교육의 지침으로서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Gregory and Nixon 2003).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정보지식인을 평가하는 윤곽

을 제공하는데(강혜영 2002),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메타인지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5가지 단계별 개념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요구하는 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 (2)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
- (3) 정보와 정보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지식베이스와 가치체계에 통합
- (4) 개인적으로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
- (5) 정보의 이용과 접근에서 윤리성과 합법성에 관련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 이해

학교, 대학, 성인의 정보활용능력 교육프로그램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단계별 기준으로 소개된 Big6(Eisenberg and Berkowitz 2001)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범주는 (1) 정보문제 정의, (2) 정보탐색전략, (3) 소재파악과 접근, (4) 정보의 활용, (5) 정보의 통합, (6) 정보의 평가 6가지이다. 또한 Bruce(1997) 정보활용능력의 개념을 (1) 정보기술 개념, (2) 정보소스 개념, (3) 정보처리 개념, (4) 정보통제 개념, (5) 지식구축 개념, (6) 지식확장 개념 (7) 지혜 개념의 7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개념적 범주를 ACRL의 기준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분석에서 살펴보면 ACRL에서 제시하는 정보활용능력 기준은 다른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보편적인 단계적 개념화와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CRL 기준은 5가지 기준개념 아래 26개의 성취 지침을 제시하고 각 지침들은 다시 상세한 실천행목을 포함

(표 1) 정보활용능력 기준들의 개념범주

ACRL 기준	BIG6	Bruce의 연구
1.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1. 정보문제의 정의	1. 정보기술 개념
2. 정보의 접근	2. 정보탐색 전략 3. 소재파악과 접근	2. 정보소스 개념
3. 정보의 평가와 통합	5. 정보의 통합 6. 정보의 평가	3. 정보처리개념 4. 정보통제 개념
4. 정보의 활용	4. 정보의 활용	5. 지식구축개념 6. 지식확장개념
5. 정보의 윤리		7. 지혜개념

하고 있어 적용이 편리한 매우 합리적인 개념 구조이다.

2.2.3 ACRL 기준 적용사례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ACRL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Seton Hall University에서는 ACRL의 기준 위에 “정보활용능력교육은 탐구전략 개발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보-탐색 행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개념을 추가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 튜토리얼을 제작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강의 도구로서 온라인 모듈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별화한 강의에 역점을 두었다. 강의에 신기술을 응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과정에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모델을 2002년에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서부터 깊이를 차별화한 각 단계별 내용과 정보게임, 그리고 퀴즈와 서베이 등을 통한 평가까지를 포괄하고 있다(Bloom and Deyrup 2003).

이외에도 ACRL 단계별 기준을 기초로 정보

활용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학은 Iowa State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Northridg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George Mason University, James Madison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Ohio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ufts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등이 있다(Gregory and Nixon 2003).

국내의 연구 중에 강혜영(2002)은 효과적인 정보이용능력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기 위하여 ACRL 기준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개발한 10개의 기술모델을 비교한 결과, (1) 정보요구의 확인은 비교대상의 모델이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2) 다수의 모델이 정보원 이해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3) 정보접근 전략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4) 정보탐색과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 이었으며, (5) 정보와 정보원의 평가하고 종합하는 요소를 모든 모델에서 다루고 있으며, (6) 모델들에 포함된 정보이용은 주로 논문작성법, 인용, 구두 발표 등이다.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도출된 사항들은 모두 ARCL의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었다.

이현실(2003)은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이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ACRL에 근거하여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ACRL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술 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의 기초적 이해에 관련한 항목이 다수 도출되었고, 분석적 판단력을 요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었다. 대학의 정보활용능력교육에 요구되는 내용이 기초적인 항목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은 초·중등의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해석되었다.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측면의 의견이 수렴될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육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연구 방법과 결과의 분석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전북대학교 학부생

107명과 원광대학교 학부생 109명의 총 216명이다.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남학생 102명(47.2%) 여학생 114명(52.8%)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3명(29.2%), 2학년 55명(25.5%), 3학년 51명(23.6%), 4학년 45명(20.8), 무응답 2명(0.9%)이다. 전공별로는 공학 42명(19.4%), 인문과학 55명(25.5%), 사회과학 63명(29.2%), 자연과학 17명(7.9%), 생활과학 6명(2.8%), 예체능 18명(8.3%), 농학 4(1.9%)명, 의학 8명(3.7%), 무응답 3명(1.4%)이었다.(표 2)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20인의 학부생에게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 구성의 적절성을 검증하였고 이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구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내용은 ACRL의 기준에서 단계별로 제시하는 지침들의 세부내용인 항목(부록참고)에 대하여 학생이 판단하는 중요 인식도를 평가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의 중요 인식도를 “매우중요

(표 2) 대상자 21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	전북대	107	50.5	전공	인문과학	55	25.5
	원광대	109	49.5		자연과학	17	7.9
성별	남자	102	47.2	사회과학	63	29.2	
	여자	114	52.8	생활과학	6	2.8	
학년	1	63	29.2	예체능	18	8.3	
	2	55	25.5	공학	42	19.4	
	3	51	23.6	농학	4	1.9	
	4	45	20.8	의학	8	3.7	
	무응답	2	0.9	무응답	3	1.4	

하다”(5점), “중요하다”(4점), “보통이다”(3점), “중요치않다”(2점), “전혀중요치않다”(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코딩하였다. 이것으로 각 단계간의 중요인식도, 단계내의 지침간에 중요인식도, 항목의 중요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5년 3월 14일부터 2005년 4월 8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전북대학교의 경우는 ‘도서관·정보이용법’ 과목을 수강 신청한 두 클래스의 학생들에게서 강사가 학기초 수업시간에 110부의 설문지를 집단으로 배포 107부 회수(97.3 %) 하였고 원광대학교의 경우는 4개의 도서관 주제실(인문과학실, 사회과학실, 자연과학 및 예체능실, 학술논문실)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140부 배포하여 109부 회수(77.86 %)하였다.

3.3 자료의 분석방법

설문지 총 86문항에 대한 중요 인식도 평가를 대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ACRL 기준의 단계간로 차이가 있는지, 단계내의 지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각 단계내의 항목들에 대한 중요 인식도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성별, 학교별로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학년별, 전공별로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정보활용능력 기준의 개념범주인 각 단계간의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각 단계별로 지침들 간의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단계내의 실천항목에 대한 중요 인식도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구하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3.4 분석된 인식도의 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별, 학년별, 전공별의 인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단계간, 단계별 분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4.1 단계간 분석

ACRL에서 제시하는 5개 단계간에 인식도 측정은 표 3과 같으며, 여기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F=.056, P=.945>0.5$).

(표 3) ACRL 기준의 단계간 인식도 평가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유의확률)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3.7061	.53169		
정보의 효과적 접근	3.6158	.52483		
정보의 평가와 통합	3.6672	.54036	.056	.945
정보의 이용	3.6875	.59438		
정보윤리	3.7191	.63793		

3. 4. 2 단계별 분석

단계내의 지침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내용과 세부항목에 관한 중요 인식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자신이 요구하는 정보를 알고(Know), 해답을 줄 수 있는 정보원을 파악하여 정보이용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4가지의 성취지침과 16개 세부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항목들의 평가를 통한 각 지침들에 대하여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F=13.176 p=0.000<0.001)가 나타났다(표 4 참조).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요구정보의 정의(M=3.90)』에 관한 지침이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필요한 정보 수집의 비용과 이익 파악(M=3.70)』, 『요구정보 범위와 특성의 재평가(M=3.69)』이었으며, 『정보자원의 유형 확인(M=3.48)』이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는 지침으로 나타났다.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의 실천 항목인 16개의 세부내용에 대한 중요 인식도의

순위를 파악한 결과가 표 5와 같으며, 표에서 평균점수와 순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5개의 항목은 「필요한 정보의 핵심개념과 용어를 확인한다(M=4.20)」, 「관리하기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수정한다(M=3.98)」, 「기존의 정보가 원래의 사상 및 새로운 정보생산에 매우 중요함을 안다(M=3.90)」, 「주제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정보자원을 탐색한다(M=3.88)」, 「교수나 동료와의 토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나 탐구주제를 확인한다(M=3.84)」의 순이었다.

인식도가 낮게 평가된 5개 항목은 「정보의 생산, 조직, 보급에 대해 이해한다(M=3.28)」, 「raw data, 1차자료와 2차자료에 대해 이해한다(M=3.31)」, 「자원의 활용목적과 이용대상을 구별한다(M=3.48)」, 「도서, 웹사이트,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 자료의 가치와 차이점을 확인한다(M=3.54)」,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이해에 필요한 기술과 외국어 습득을 고려한다(M=3.62)」의 순이었다.

(2) '정보의 효과적 접근' 단계

'정보의 효과적 접근' 단계는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Access)하는 과정에 대한 5

(표 4) '요구정보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의 지침 평가

지침	평균	표준편차	F	P
요구정보의 정의	3.9009 a	.59826	13.176	.000
정보자원의 유형확인	3.4769 c	.65544		
필요한 정보 수집의 비용과 이익 파악	3.7007 b	.76471		
요구정보의 범위와 특징 재평가	3.6852 b	.77187		

*Duncan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α=.05)

(표 5)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의 세부항목 평가

항목번호	평균	표준편차	순위
1단계 [1]-1	3.84	.991	5
1단계 [1]-2	3.62	.967	11
1단계 [1]-3	3.88	.932	4
1단계 [1]-4	3.98	.907	2
1단계 [1]-5	4.20	.876	1
1단계 [1]-6	3.90	1.025	3
1단계 [2]-1	3.28	.978	16
1단계 [2]-2	3.77	.904	6
1단계 [2]-3	3.54	1.011	13
1단계 [2]-4	3.48	.997	14
1단계 [2]-5	3.31	.931	15
1단계 [3]-1	3.73	.977	8
1단계 [3]-2	3.62	1.006	12
1단계 [3]-3	3.76	1.023	7
1단계 [4]-1	3.69	.910	9
1단계 [4]-2	3.68	.903	10

* 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수록

가지 지침과 22개 세부 실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개 항목의 평가를 통한 해당 지침들에 대하여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F=3.125$ $p=0.014 < 0.05$)가 나타났다(표 6 참조).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이 단계의 지침들에서는 『효과적인 검색전략의 구현($M=3.74$)』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그 다음이 『검색전략의 정제($M=3.61$)』였

다. 그리고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조사방법의 선택($M=3.59$)』, 『온라인이나 인적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검색 실시($M=3.55$)』, 『정보와 자원의 추출, 기록, 관리($M=3.54$)』의 지침들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효과적 접근’ 단계의 실천항목인 22개의 세부내용에 대한 중요 인식도의 순위를 파악한 결과가 표 7과 같으며, 표에서 평균점수와

(표 6) '정보의 효과적 접근' 단계의 지침 평가

평가기준	평균	표준편차	F	P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조사방법의 선택	3.5903 b	.69421		
효과적인 검색 전략의 구현	3.7422 a	.58800		
온라인이나 인적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검색 실시	3.5483 b	.70326	3.125	.014
검색전략의 정제	3.6136 ab	.75433		
정보와 자원의 추출, 기록, 관리	3.5366 b	.66368		

*Duncan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alpha=.05$)

(표 7) '정보의 효과적 접근 단계'의 세부 항목 평가

항목번호	평균	표준편차	순위
2단계 [1]-1	3.69	.932	9
2단계 [1]-2	3.41	.950	18
2단계 [1]-3	3.40	.891	19
2단계 [1]-4	3.87	.962	5
2단계 [2]-1	3.59	.996	12
2단계 [2]-2	3.73	.934	6
2단계 [2]-3	3.62	.920	10
2단계 [2]-4	3.54	.960	14
2단계 [2]-5	4.06	.900	1
2단계 [2]-6	3.95	1.015	2
2단계 [3]-1	3.93	.939	3
2단계 [3]-2	3.72	1.011	7
2단계 [3]-3	3.47	1.129	17
2단계 [3]-4	3.08	1.083	22
2단계 [4]-1	3.60	.982	11
2단계 [4]-2	3.71	.939	8
2단계 [4]-3	3.52	.968	16
2단계 [5]-1	3.89	.968	4
2단계 [5]-2	3.36	.983	20
2단계 [5]-3	3.53	.874	15
2단계 [5]-4	3.30	.975	21
2단계 [5]-5	3.59	.977	12

* 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수록

순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5개의 항목은 「다양한 검색방법, 검색엔진,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실시한다(M=4.06)」, 「전공에 적합한 방법으로 검색을 한다(M=3.95)」, 「다양한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검색한다(M=3.93)」, 「원하는 정보 추출에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다(M=3.89)」, 「연구조사 방법이나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요구정보에 효과적인 접근을 선택한다(M=3.87)」의 순이었다.

인식도가 낮게 평가된 5개 항목의 순서는 「조사, 편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일차정보를 수집한다(M=3.08)」, 「앞으로의 참고를 위해 관련된 모든 인용정보를 기록한다(M=3.30)」, 「정보

를 조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M=3.36)」,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성, 범위, 내용에 대해 조사한다(M=3.40)」, 「다양한 연구조사 방법의 이점과 응용에 대해 조사한다(M=3.41)」였다.

(3) '정보의 평가와 통합' 단계

'정보의 평가와 통합' 단계는 정보와 정보원을 분석적으로 평가(Evaluate)하고, 자신의 지식 기반과 가치 시스템에 선별된 정보를 병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정은 7가지 성취지침과 25개의 세부적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5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해당 기준들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F=7.967$ $p=0.000<0.001$)가 나타났

다(표 8 참조). 이들의 Duncan 사후검정 결과, 이 단계에서 가장 높게 인식되는 지침들은 『정보와 자원의 평가 기준 적용(M=3.84)』, 『정보의 가치, 모순, 성격 등의 결정에 새로운 지식과 선행지식의 비교(M=3.79)』, 『처음 질의의 수정여부 결정(M=3.66)』의 순이었다. 그 다음이 『새로운 지식이 개인의 가치 체계에 주는 영향력 판단(M=3.59)』, 『추출한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 요약(M=3.57)』, 『주요 아이디어를 새로운 개념 구축에 종합(M=3.54)』이었다.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는 지침은 『주제영역 전문가, 실무자와의 상의를 통한 정보의 이해와 해석(M=3.44)』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평가와 통합’ 단계의 실천항목인 25개 세부내용에 대한 중요 인식도의 순위를 파악한 결과가 표 9과 같으며, 표에서 평균점수와 순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5개 항목은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한다(M=3.94)」, 「신뢰성, 타당성, 정확성, 권위, 편견 등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원의 정보를 비교 검토한다(M=3.94)」, 「주제를 명백히 제시하는 정보를 선별한다」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한다(M=3.91)」, 「정보가 연구와 요구에 만족되는지를 측정한다

(M=3.90)」, 「정보 생성과 해석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충돌을 이해한다(3.87)」의 순이었다.

인식도가 낮게 평가된 5개 항목은 「문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M=3.31)」, 「주제에 관련된 강의후원 전자 포럼에 참여한다(M=3.33)」, 「추가정보가 필요하게 될 새로운 가설의 구축을 위하여, 상위 추상 개념을 발전시킨다(M=3.44)」, 「강의와 다른 토론에 참여한다(M=3.47)」, 「아이디어와 다른 현상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한 컴퓨터와 기술 장비를 설비한다(M=3.48)」의 순이었다.

(4) ‘정보의 이용’ 단계

‘정보의 이용’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나 그룹의 일원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데, 정보기술 등을 익혀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Use)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과정은 3가지의 지침과 10개의 세부적인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평가를 통하여 단계내의 각 기준들에 대하여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F=6.984 p=0.001<0.01)가 있었다(표 10 참조).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성과 전달(M=3.78)』과 『특

(표 8) ‘정보의 평가와 통합’ 단계의 지침 평가

평가지침	평균	표준편차	F	P
·추출한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 요약	3.5704 cd	.65972		
·정보와 자원의 평가 기준 적용	3.8353 a	.71832		
·주요 아이디어를 새로운 개념 구축에 종합	3.5384 cd	.72506		
·정보의 가치, 모순, 성격 등의 결정에 새로운 지식과 선행지식의 비교	3.7936 ab	.62405	7.967	.000
·새로운 지식이 개인의 가치 체계에 주는 영향력 판단	3.5810 cd	.89269		
·주제영역 전문가, 실무자와의 상의를 통한 정보의 이해와 해석	3.4374 d	.79496		
·처음 질의의 수정여부 결정	3.6599 bc	.73436		

*Duncan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α=.05)

(표 9) '정보의 평가와 통합' 단계의 세부 항목 평가

항목번호	평균	표준편차	순위
3단계 [1]-1	3.69	.875	13
3단계 [1]-2	3.72	.969	11
3단계 [1]-3	3.31	.985	25
3단계 [2]-1	3.94	.923	1
3단계 [2]-2	3.71	.961	10
3단계 [2]-3	3.83	1.054	6
3단계 [2]-4	3.87	1.005	5
3단계 [3]-1	3.70	.939	12
3단계 [3]-2	3.44	.938	23
3단계 [3]-3	3.48	.988	21
3단계 [4]-1	3.90	.952	4
3단계 [4]-2	3.64	.800	14
3단계 [4]-3	3.94	.882	1
3단계 [4]-4	3.62	1.040	16
3단계 [4]-5	3.81	1.028	7
3단계 [4]-6	3.74	.960	9
3단계 [4]-7	3.91	.943	3
3단계 [5]-1	3.62	1.020	16
3단계 [5]-2	3.56	1.002	19
3단계 [6]-1	3.47	1.025	22
3단계 [6]-2	3.33	.974	24
3단계 [6]-3	3.51	1.050	20
3단계 [7]-1	3.75	.911	8
3단계 [7]-2	3.59	.895	18
3단계 [7]-3	3.64	.916	14

* 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수록

(표 10) '정보의 이용' 단계의 지침 평가

평가기준	평균	표준편차	P	F
특정작업 계획에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적용	3.6817 a	.64133		
특정작업(성과물)의 개발절차 수정	3.5140 b	.86456	6.984	.001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성과 전달	3.7766 a	.69226		

*Duncan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alpha = .05$)

정작업(성과물) 계획에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적용(M=3.69)이 『특정작업(성과물)의 개발절차 수정(M=3.51)』 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이용' 단계의 실천항목인 10개 세부 내용에 대한 중요 인식도 순위를 파악한 결과가

표 11과 같으며, 표에서 이들의 평균점수와 순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항목들은 「청중에 맞는 스타일로 명확하게 전달한다(M=4.04)」, 「작업의 목적 및 청중에게 알맞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나 구성을 선택한다(M=3.88)」, 「이전 경험에서 익힌 지식과 기

술을 작업 계획에 연결하여 이용한다(M=3.74)의 순이었다.

인식도가 낮게 평가된 항목은 「정보탐구, 평가, 통신 절차에 관련된 행위의 일지와 기록을 유지한다(M=3.46)」,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도입한다(M=3.52)」, 「과거에 있었던 정보이용 과정의 성공, 실패, 대안적인 전략을 반영한다(M=3.62)」의 순이었다.

(5) '정보윤리' 단계

'정보윤리' 단계는 윤리적이고 합법적(Ethical / Legal)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에 관계되는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과정이다. 이 단계는 7가지의 지침과 13개의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의 평가를 통하여 각 지침들에 대한 인

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F=.056 p=.945>.05)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따라서 『정보와 정보기술에 관련한 윤리적, 법적, 사회 경제적 문제의 이해(M=3.73)」, 『정보접근과 이용에 관련한 법, 규칙, 규정, 예절 준수(M=3.71)」, 그리고 『정보자원의 이용에 감사(M=3.73)」의 모든 지침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윤리' 단계의 실천항목인 13개 세부내용에 대한 중요 인식도의 순위를 파악한 결과가 표 13과 같으며, 표에서 이들의 평균점수와 순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4개의 항목은 「표절과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이해한다(M=3.98)」,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보안

(표 11) '정보의 이용' 단계의 세부 항목 평가

항목번호	평균	표준편차	순위
4단계 [1]-1	3.68	.928	5
4단계 [1]-2	3.74	.856	3
4단계 [1]-3	3.69	.868	4
4단계 [1]-4	3.62	.923	7
4단계 [2]-1	3.46	.946	10
4단계 [2]-2	3.58	1.014	8
4단계 [3]-1	3.88	.917	2
4단계 [3]-2	3.67	.835	6
4단계 [3]-3	3.52	.959	9
4단계 [3]-4	4.04	1.049	1

* 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수록

(표 12) '정보의 윤리' 단계의 지침 평가

평가기준	평균	표준편차	P	F
· 정보와 정보기술에 관련한 윤리적, 법적, 사회 경제적 문제의 이해	3.7291	.81896		
· 정보접근과 이용에 관련한 법, 규칙, 규정, 예절 준수	3.7095	.65690	.056	.945
· 정보자원의 이용에 감사	3.7326	.82136		

(표 13) '정보의 윤리' 단계의 세부 항목 평가

항목번호	평균	표준편차	순위
5단계 [1]-1	3.84	1.065	2
5단계 [1]-2	3.67	.955	9
5단계 [1]-3	3.66	.967	10
5단계 [1]-4	3.74	1.084	7
5단계 [2]-1	3.45	1.030	13
5단계 [2]-2	3.79	.982	5
5단계 [2]-3	3.55	.960	12
5단계 [2]-4	3.58	.953	11
5단계 [2]-5	3.83	.926	3
5단계 [2]-6	3.98	1.021	1
5단계 [2]-7	3.80	.990	4
5단계 [3]-1	3.78	.828	6
5단계 [3]-2	3.69	1.142	8

* 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수록

의 문제를 확인하고 토론한다(M=3.84)», 「원문, 데이터, 이미지, 사운드를 적법하게 수집, 저장, 보급한다(M=3.83)», 「인간관련 문제 연구에 대한 규범적 정책을 이해한다(M=3.80)였다.

인식도가 낮게 평가된 4개의 항목은 「인정된 방법(예: Netiquette)으로 전자토론에 참여한다(M=3.45)», 「정보자원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M=3.55)», 「정보자원, 장비, 시스템, 시설을 통합적으로 유지한다(M=3.58)», 「언론의 자유와 검열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토의한다(M=3.66)」의 순이었다.

5. 결 론

대학교육의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하는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은 사서의 인식과 노력을 전제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컴퓨팅과 미디어기술과 같은 최신 급속히 발전

되는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윤리 문제, 비판적 사고력 등을 총 망라하여 대학에서 학문 활동의 기초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관한 국내의 동향이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풍부한 연구와 다양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개선해 나가고 있었으며, ACRL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심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보활용능력 교육프로그램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메타인지적인 체계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고등교육위원회(ACRL)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기준'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약할 수 있었다.

성별, 학교별, 학년별, 전공별의 집단간 인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ACRL 기준에서 단계간의 인식도 측정에도 유의한 차이

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계별 측정에서 지침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단계에서는 『요구정보의 정의』에 관한 지침이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필요한 정보 수집의 비용과 이익 파악』, 『요구 정보 범위와 특징의 재평가』였으며, 『정보자원의 유형 확인』이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 항목은 「필요한 정보의 핵심개념과 용어를 확인한다」였고 가장 낮은 항목은 「정보의 생산, 조직, 보급에 대해 이해한다」였다.

(2) '정보의 효과적 접근' 단계의 지침들에서는 『효과적인 검색전략의 구현』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그 다음은 『검색전략의 정제』이었고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조사방법의 선택』, 『온라인이나 인적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검색 실시』, 『정보와 자원의 추출, 기록, 관리』가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세부 항목은 「다양한 검색방법, 검색엔진,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실시한다」였고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조사, 편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일차정보를 수집한다」였다.

(3) '정보의 평가와 통합' 단계에서 가장 높게 인식되는 지침들은 『정보와 자원의 평가 기준 적

용』, 『정보의 가치, 모순, 성격 등의 결정에 새로운 지식과 선행지식의 비교』, 『처음 질의의 수정 여부 결정』의 순이었다. 그 다음이 『새로운 지식이 개인의 가치 체계에 주는 영향력 판단』, 『추출한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 요약』, 『주요 아이디어를 새로운 개념 구축에 종합』이었다.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는 지침은 『주제영역 전문가, 실무자와의 상의를 통한 정보의 이해와 해석』이었다. 여기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 항목은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한다」였고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문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였다.

(4) '정보의 이용' 단계에서는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성과 전달』과 『특정작업(성과물) 계획에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적용』이 『특정작업(성과물)의 개발절차 수정』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세부 항목은 「청중에 맞는 스타일로 명확하게 전달한다」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정보탐구, 평가, 통신 절차에 관련된 행위의 일지와 기록을 유지한다」였다.

(5) '정보윤리' 단계에서는 각 지침들간의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세부 항목은 「표절과,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이해한다」였고,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인정된 방법(예: Netiquette)으로 전자토론에 참여한다」였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7-320.
- 김병주. 1998.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 연구: 미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9집: 138-152.
- 이현실. 2004.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 능력 교육항목 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4-322.
- 장덕현. 200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57-76.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 Arp, Lori, and Beth S. Woodward. 2002. Recent Trends in Information Literacy and Instruc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42(Winter): 124-132.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ited 2005. 5]
- Bloom, Beth and Marta Deyrup. 2003. Information Literacy Across the Wired University. *Reference Services Review*, 31(3): 237-247.
- Bruce, Christine. 1997. *The Seven Faces of Information Literacy*. Adelaide: Auslib Press.
- Eisenberg and Berkowitz. 2001. [cited 2005. 5] Big6. <<http://www.big6.com/index.php>>
- Eland, Thomas. 2003. The Faculty Role in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List, August 11.
- Gregory, David and William F. Nixon 2003. The Instruction Commons: an Information Literacy Initiative at Iowa State University. *Library Review*, 52(9): 422-432.
- Henderson, Martha and Anthony J. Scheffler 2003. New Literacies, Standards, and Teacher Education. *Education*, 124(2): 390-395.
- Higgins, Carla and Mary Jane Cedar Face. 1998. Integrating Information Literacy Skills into the University Colloquium: Innovation at Southern Oregon University. *Reference Services Review*, fall/winter: 17-23
- Jenson, Jill D. 2004. It's the Information Age, So Where's the Information?: Why Our Students Can't Find It and What We Can Do to Help. *College Teaching*, 52(3): 107-112.
- Say, Y., and K. Ke jager. 1997. Towards an Investig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in south African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5(1) : 5-12.

〈부 록〉 ACRL의 정보활용능력 기준

- 제1단계 - 요구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지침[1] “요구정보의 정의”에 관한 내용

-
1. 교수나 동료와의 토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나 탐구주제를 확인한다
 2.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문 진술을 개발하고 질의를 만든다
 3. 주제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정보자원을 탐색한다
 4. 관리하기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수정한다
 5. 필요한 정보의 핵심개념과 용어를 확인한다
 6. 기존의 정보가 원래의 사상 및 새로운 정보생산에 매우 중요함을 안다
-

지침[2] “정보자원의 유형 확인”에 관한 내용

-
1. 정보의 생산, 조직, 보급에 대해 이해한다
 2. 지식이 학문으로 조직 될 수 있고, 학문은 정보 접근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3. 도서, 웹사이트,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 자료의 가치와 차이점을 확인한다.
 4. 자원의 활용목적과 이용대상을 구별한다(최신성과 역사성, 대중성과 학문성 등의 기준)
 5. raw data(통계 데이터 등), 1차자료(단행본, 기사, 논문 등의 원정보)와 2차자료(원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 색인, 서평 등)에 대해 이해한다
-

지침[3] “필요한 정보 수집의 비용과 유익성 파악”에 관한 내용

-
1. 필요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고 외부의 자료까지 정보 탐색을 확대한다(예: 상호대차, 타관자료,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사운드 이용)
 2.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이해에 필요한 기술과 외국어 습득을 고려한다.
 3.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반적 계획을 세운다
-

지침[4] “요구정보의 범위와 특성 재평가”에 관한 내용

-
1. 처음 필요했던 정보에 관한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한다
 2.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설명한다.
-

- 제2단계 - 정보의 효과적 접근

지침[1]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조사방법의 선택”에 관한 내용

1. 적합한 연구조사 방법(실험실 실험, 시뮬레이션, 현지조사 등)을 확인한다
2. 다양한 연구조사 방법의 이점과 응용에 대해 조사한다
3.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성, 범위, 내용에 대해 조사한다
4. 연구조사 방법이나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요구정보에 효과적인 접근을 선택한다

지침[2] “효과적 검색 전략의 구현”에 관한 내용

1. 연구조사 방법에 합당한 연구계획을 개발한다
2. 필요한 정보에 관련된 용어, 키워드, 동의어를 확인한다
3. 특정 학문이나 정보검색에 적합한 통제어휘(정보검색에 사용하는 색인어)를 선택한다
4. 선택한 정보검색 시스템에 적합한 명령어 사용 등의 정보검색을 전략을 세운다(부울 연산(and, or not), 절단 : 도서색인 등의 이용)
5. 다양한 검색방법, 검색엔진,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실시한다
6. 전공에 적합한 방법으로 검색을 한다.

지침[3] “온라인이나 인적자원을 이용한 정보 찾기”에 관한 내용

1. 다양한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검색한다.
2. 도서관내·외의 정보자원 소재과약을 위해 분류체계, 청구번호, 색인 등을 이용한다
3. 온라인이나 인적 서비스(예: 상호대차/문헌전달, 전문연합회, 기관 연구소, 협회자원, 전문가, 실무자)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4. 조사, 편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일차정보를 수집한다

지침[4] “검색 전략의 정제”에 관한 내용

1. 검색결과와 질, 양, 상관성을 평가하여, 대안적 시스템이나 연구 조사적인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2. 검색된 정보의 결함 확인 및 검색 전략의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된 전략으로 검색을 반복한다.

지침[5] “정보와 자원의 추출, 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

1. 원하는 정보 추출에 다양한 기술(복사/붙임, 소프트웨어 기술, 프로토콜, 스캐너, 시청각 장비, 탐색장비 등)을 이용한다
2. 정보를 편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
3. 인용된 자원의 유형들을 구분하고 정확한 인용구문과 요소를 이해한다
4. 앞으로의 참고를 위해 관련된 모든 인용정보를 기록한다
5. 선택한 정보의 관리와 편성에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다

- 제3단계 - 정보의 평가와 통합

지침[1] “추출된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 요약”에 관한 내용

1. 텍스트를 읽고 주요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2. 원문의 개념을 소화하여 정확하게 데이터를 선별한다
 3. 문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지침[2] “정보와 자원의 평가 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

1. 신뢰성, 타당성, 정확성, 권위, 편견 등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원의 정보를 비교 검토한다.
 2. 뒷받침 되는 논거 및 방법론의 구조와 논리를 분석한다
 3. 정보의 편견, 거짓, 조작을 가린다
 4. 정보 생성과 해석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충돌을 이해한다
-

지침[3] “주요 아이디어를 새로운 개념 구축에 종합”에 관한 내용

1. 개념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추가정보가 필요하게 될 새로운 가설의 구축을 위하여, 상위 추상 개념을 발전시킨다
 3. 아이디어와 다른 현상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한 컴퓨터와 기술(표계산,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시청각 장비)을 설비한다
-

지침[4] “정보의 가치, 모순, 성격 등의 결정에 새로운 지식과 선행 지식의 비교”에 관한 내용

1. 정보가 연구와 요구에 만족되는지를 측정한다
 2. 정보가 다른 출처의 정보와 일치 또는 모순을 결정하는데 선별된 기준을 이용한다
 3.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4. 전공에 적합한 기술(예: 시뮬레이터, 실험)을 이용하여 이론을 테스트한다
 5. 데이터 출처, 정보수집 방법의 제한점, 결론의 합리성을 물어 정확성을 측정한다
 6. 새로운 정보를 이전의 정보나 지식에 통합한다
 7. 주제를 명백히 제시하는 정보를 선별한다
-

지침[5] “새로운 지식이 개인의 가치 체계에 주는 영향력 판단”에 관한 내용

1. 문헌에서 대립되는 다른 견해를 조사한다
 2. 대립되는 견해를 결합하거나 거부할지를 판단한다
-

기준[6] “주제영역 전문가, 실무자 등과의 담론을 통한 정보의 이해와 해석”에 관한 내용

1. 강의와 다른 토론에 참여한다.
 2. 주제에 관련된 강의후원 전자 포럼(이메일, 전자게시판, 채팅)에 참여한다.
 3.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다(예: 인터뷰, 이메일)
-

지침[7] “처음 질의의 수정여부 결정”에 관한 내용

1. 원래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지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2. 검색 전략을 검토하고 추가되는 개념을 편입한다
 3. 사용된 정보자원을 검토하고 필요한 다른 자원 포함을 확장한다.
-

- 제4단계 - 정보이용

지침[1] “특정 작업(성과물) 계획에 이전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적용”에 관한 내용

1. 작업(성과물)의 목적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2. 이전 경험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작업(성과물) 계획에 연결하여 이용한다
 3. 적합한 인용, 문단나누기 등 작업(성과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와 이전 정보를 결합한다
 4. 디지털 문헌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여 새로운 맥락으로 변화한다
-

지침[2] “작업(성과물)의 개발 절차 수정”에 관한 내용

1. 정보탐구, 평가, 통신 절차에 관련된 행위의 일지와 기록을 유지한다
 2. 과거에 있었던 정보이용 과정의 성공, 실패, 대안적인 전략을 반영한다
-

지침[3]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성과 전달”에 관한 내용

1. 작업(성과물)의 목적 및 청중에게 알맞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나 구성을 선정한다
 2. 성과물의 생성이나 수행에 정보기술을 응용한다
 3.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도입한다
 4. 청중에 맞는 스타일로 명확하게 전달한다
-

- 제5단계 - 정보윤리

지침[1] “정보와 정보기술에 관련한 윤리적, 법적, 사회 경제적 문제의 이해”에 관한 내용

1.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를 확인하고 토론한다
 2. 정보의 자유접근과 유료접근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고 논의한다
 3. 언론의 자유와 검열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토의한다
 4. 지적재산권, 복제권, 복제허용자료 공정이용에 관한 협정을 이해한다
-

지침[2] “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관련한 법, 규칙, 규정, 예절 준수”에 관한 내용

1. 인정된 방법(예: Netiquette)으로 전자토론에 참여한다
 2. 승인된 암호, ID형식을 이용하여 정보자원에 접근한다
 3. 정보자원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4. 정보자원, 장비, 시스템, 시설을 통합적으로 유지한다
 5. 원문, 데이터, 이미지, 사운드를 적법하게 수집, 저장, 보급한다
 6. 표절과,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이해한다
 7. 인간관련 문제 연구에 대한 규범적 정책을 이해한다
-

지침[3] “정보자원 이용의 인정”에 관한 내용

1. 적절한 문서화 스타일을 선택하고, 자원 인用に 계속 이용한다
 2. 복제허용 자료에 복제권 승인 표시를 부착한다.
-